

		보도자료		<i>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합니다!</i>
보도일시	2024. 5. 30(목) 13시 이후(뉴욕 현지시간)			
배포일자	2024. 5. 30(목)	매 수	총 2 매	
배포부서	뉴욕지사	담당자	이경택 지사장 +1(646)282-7703 황원석 부장 +1(646)282-7701	

KIC, 뉴욕 한인 금융인과 사모 대출 시장 논의

- 제11차 뉴욕 금융인 포럼 개최

- NXT 캐피탈 “사모 대출 시장의 기회 요인과 운용사 선정의 중요성”

국부펀드 KIC가 뉴욕에서 한인 금융인 및 현지 경제전문가와 함께 하반기 미국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진승호)는 뉴욕지사 주관으로 지난 30일 오전(현지시간) 뉴욕 총영사관에서 제11차 ‘뉴욕 금융인 포럼(New York Korean Finance For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주미한국대사관 재경관을 포함해 정부, 공공 투자기관, 증권사·은행·보험사 등의 투자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NXT 캐피탈의 테드 데니스턴 (Ted Denniston) 공동 대표는 “금융 위기 이후 은행 대출 시장을 대체하며 급성장해 온 사모 대출 시장은 여전히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지만 운용사 선정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NXT 캐피탈은 1981년 미국에 진출한 이래 850억 달러 자산을 보유한 자산운용사로 성장한 ORIX USA의 자회사이다.

테드 데니스턴 대표는 “2008년 금융 위기 직후 3000억 달러 규모였던 사모 대출 시장이 작년 1조 7천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해 사모 시장 전체 규모의 16%를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규제 환경의 변화라는 외적인 요인

도 있었지만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사모 대출 시장이 제공하는 효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모 대출 시장 내에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우수 운용사 선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모대출 시장이 고금리의 장기화 시나리오에서 변동 금리에 따른 고수익을 누릴 수 있고, 대출 조건도 대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계약을 짤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러한 우호적 환경에서도 우수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이 위험 관리와 수익률 향상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맥락이다.

테드 데니스턴 공동 대표는 운용사 선정 시 “운용사와 투자자의 이해가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지, 대출이 부실화 되었을 경우 최대한 많은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운용팀의 팀 워크와 업력은 어떠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추천했다.

뉴욕 금융인 포럼을 주관한 KIC의 이경택 지사장은 “수년 전부터 글로벌 금융 시장의 가장 중요한 자산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모 대출 시장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한국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C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싱가포르)에 해외 지사를 두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공공·민간 금융기관과 해외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

문의처: 뉴욕지사 이경택 지사장
 Tel : +1(646)282-7703, kyoungtaek.lee@kic.go.kr
 뉴욕지사 황원석 부장
 Tel : +1(646)282-7701, wonseock.hwang@kic.go.kr

“KIC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kic.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